

Story of Michelle

Sapporo Int'l Buldg, 26-1 Kita 4 Jo Nishi 11Chome,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4 Japan
Tel: 81-11-221-8851/ Cell: 81-80-3293-6775 michyus69@gmail.com

August 2018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우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7-8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유대백성들의 죄에 의한 것임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열매 맺으며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파송교회인 선한목자교회의 2018년도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치료가 모두 끝나고 지난 3개월간 휴식을 위해 미국에 다녀 왔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본 교회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며 많이 회복되고, 안식을 갖고 다시 삿포로에 돌아 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주셨음을 직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삿포로에 돌아와 지난 8월20일 치료 후 첫 검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3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는 계속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5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뜨거운 엘에이에서 삿포로에 돌아오니, 이곳은 태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의 피해가 많습니다. 서일본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명의 피해도 많고,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0개의 태풍이 지나갔고 아직 몇 개의 더 강한 태풍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당면하여,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자연까지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재해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사역에 복귀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사역과, 일본어 청년부 사역을 이번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예배 인도와 금요기도모임 인도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조금은 여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나를 위해 개인의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시간의 여유도 생겨서 그 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다른 단체의 선교사들과의 기도모임과 교제에도 참석을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재정비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삿포로 국제교회는 9월1일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30분 일찍, 1층에서는 그 동안 오후에 있었던 중국어예배가, 2층에서는 일본어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배 후 40분 동안 담임목사님의 지도하에 어른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성경공부입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목사님의 말씀이 통역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교인이 언어의 다름을 넘어서 한 교회의 가족으로 담임목사님의 지도하에 훈련을 받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예배자로서 더 성숙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어른들 성경공부가 있는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새롭게 임명된 교사들도 있습니다. 짧은 주일학교 시간이지만 자녀들이 성경적인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변경과 새로운 성경공부로 인해 시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예전보다 함께 모이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혼잡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서로 이해 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됨을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삿포로에서 Michelle Lee 선교사

Story of Michelle

Sapporo Int'l Buldg, 26-1 Kita 4 Jo Nishi 11Chome,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4 Japan
Tel: 81-11-221-8851/ Cell: 81-80-3293-6775 michyus69@gmail.com
August 2018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trust is the Lord.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and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for its leaves remain green, and is not anxious in the year of drought, for it does not cease to bear fruit." Jeremiah 17:7-8

Jeremiah was a prophet who gave the warning of destruction and the message of salvation to the people of Judah before Judah got exiled. He reminded the people that the reason of Judah's destruction was not the strength of Babylon, but it was their disobedient behavior toward the Lord. He strongly encouraged them to repent and return to the Lord. These verses are God's promise to His people that He would forgive and bless when they confess their sins and return to Him. It is very important scriptures to us as well. In order to live in this wicked world without any fear and to bear the fruits, we must trust the Lord. This is a theme verse of my home church for 2018. Let's trust the Lord, only the Lord.

After I finished all the treatments, I went to the States for the rest for three months. By spending time with the families, and by having fellowship with my home church family, I got refreshed and recharged a lot. And now I am returned to Sapporo again. I realized that so many people had prayed for me. I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race and mercy. After I came back, I had my first check up after the treatment on August 20th. The result came out as there is nothing wrong. Praise the Lord. I have to do this check up every three months for the next five years. Please keep pray for me that nothing would be wrong for the rest of 5 years. Thank you once more for your prayers.



When I return to Sapporo from very hot Los Angeles, the typhoons were passing through whole Japan. There are very serious damages by typhoons this year. West Japan is the worst. Multiple typhoons hit West Japan and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and many houses got crashed. There have been 20 typhoons passed by already and more severe ones are expected. We, human beings, cannot do anything about these natural disasters, but only God could do. We pray that Japan and the people of Japan would acknowledge and admit the Lord who controls even these natural disasters. Please pray also for the Christians as well as the churches in these areas that they would share the love of Christ and be the witness of the work of our living God.

I also returned to the ministry. I would do the elementary ministry and young people's ministry. I would also keep leading the Sunday worship service as well as Friday prayer meeting. I would be very flexible this year unlikely last previous years. And I thank God for this flexibility. Since I have more of relaxed time this year, I would spend more time with Lord for my spiritual renewal. I could now join the prayer and fellowship meetings with other missionaries who work in Sapporo. I want to reflect more of my spiritual being before the Lord. Please pray for me that I would sensitively listen to His Word.

As of Sept. 1st, Sapporo International Church has many changes. The worship time and format would be changed. It would be 30 minutes earlier with the Chinese Service on the 1st floor which was in the afternoon before, and the Japanese Service on the 2nd floor. All the worship services are the family services with the children. There would be the Bible Study lead by senior pastor for 40 minutes right after the service. This is a new thing to start. It would be translated into English, Chinese and Korean. This is to be trained by the same leadership as a family beyond the language differences. This is also to be matured as the worshippers of the Lord. At the same time, children would have their bible studies divided into kindergarten, elementary, and youth. There are newly appointed teachers this time. Although it is a short time of period, we pray that the children would be nurtured and be educated with the Word of God. Since we meet together more often, we have facility problem such as parking lot. We pray that everyone understands the situation and be willing to yield. We also pray that these changes would bring the maturity to the church rather than the confusion.



I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race. I also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encouragements. I pray that the grace and mercy of the Lord be with you all the times.
Michelle Lee from Sapporo